

연중 제15주일

기도서 389 편(A해)  
 제1독서 : 이 사 55, 10-11  
 제2독서 : 로 마 8, 18-23  
 복 음 : 마 태 13, 1-23

#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 보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강론



## 그리스도의 사람

문 규 현 신부

83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농약회사 11개 회사에서 수입된 원료가 800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그중 많은 양이 서독 바이엘 회사의 제품이라고 한다. 그런데 서독 국민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메몬스트레이손을 일으켰다고 한다. 바이엘 회사로부터 수출되는 농약원료는 서독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공해 물질으로 판명된 것들이라 한다. 서독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되어 마구 쓰여지고 있다. 자국에서는 쓰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수출된 제품으로 타국에서 오염된 농산물을 수입하므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데모의 이유다. 심한 농약 사용으로 땅은 죽어가고 있고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독약을 섭취해 가고 있는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건강하게 살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뜻에 모순되는 일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땅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죽여가고 있는 공범자라는 사실에 회개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농산물 가격이 싸기만 원한다. 어쩌면 저농산물 가격 정책이 호소력을 갖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농산물 가격 정책에 어쩔 수 없이 농약을 사용하여 다수확을 꾀해야만 할 때 농민들은 농약 공해의 직접적 피해자이며 동시에 자신과 타의 생명을 죽이는 공범자이며 가해자가 되고 만다.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에 자신 외에는 보지 않으려 하고 듣지 않으려 하고 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의사만 관철 하려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역사속에 함께 하시어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나눔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다. 세상의 고통과 죽음의 동반자가 되셨고 당신의 고통과 죽음의 승리인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세상의 희망이 되셨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이 깃들 여지를 마련하고 그 영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여지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로마 8장 9절 참조).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요한 1장 14절).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의 말씀 자체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씨앗이다. 좋은 땅을 만남을 전제조건이다. 이기적, 현실적,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좋은 땅으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자.

<교육국장>



## 그래도

물난리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한다. 집과 함께 가재도 구가 박살났는가 하면 농사도 크게 버리고, 어떤이는 죽기까지 했다. 그리고 피해가 없다고 해도, 대부분의 서민들은 장마철의 습기와 무더위에 지질대로 지쳐 있다. 하기가 장마가 자연적인 연례행사사이기는 하지만, 다른 해보다 올해가 더 유난히도 더욱 피곤한 것은 왜일까?

정말로 우리는 언제까지 이토록 짜증스럽게 지쳐서 살아야 하는가? 자연의 힘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그에 완벽하게 대비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선진국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어쩌면 오만을 떠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경중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들이 저지르는 몹쓸 작태는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도 항상 가졌다는 자들의 망나니짓이 우리 사회를 발각 뒤집어 놓고 만다. 다시 말해서 권력이나 돈을 가졌다는 자들의 윤리성이 문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다. 살붙이들과도 나눌 줄 모르는 정·이·두 사람과 관련된 것은 아주 조그만 에피소드를 보아도 그렇다.

우리는 이들이 현정권과 밀착되어 있었던 지도층 인사들(前 당대표·前 입법의원)이라는 점에 더욱 불쾌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에 떠는 것이다. 도대체 이 사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래도 선량한 시민들은 반사회를 통해서 수해복구 성금을 거둘 논의를 했다고 한다. (이번부터는 정말로 마을에서 우러나는 성금을 내야 할텐데... 세금 거두듯이 목표액 할당은 없어야지.) 참으로 이토록 선량한 시민들을 언제까지 우롱할 것인지! 그래도 선량한 시민들이 있기에 내일도 해가 떠오르며, 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다.

## 숲 정 이 산책



□전주교구 성지②

# 숲 정 이



## 죄정을 다녀와서

홍 로벨다(팔마성당)

전주의 천변도로를 타고 시가지로 오르면 왼쪽으로 해성중·고등학교와 높이 솟은 탑을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숲정이다. 숲정이는 옛날에 숲이 칙칙하게 우거져 있는 한적한 곳으로 이조시대 어느 때 부터인지 극형자를 처형하는 사형장으로 사용되었다.

이곳이 천주교 신자들의 처형장으로 인연을 맺은 첫 출발은 1801년 신유 박해 때로써, 이 누갈다와 그 가족의 일부가 치명하면서 순교자의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

1801년 신유박해 때에 유 함경이 체포되고 처형되자 가산은 몰수되고 배교하지 않은 가족들은 모두 구속되었다. 그리고 10월에는 유 함경의 처 신희, 자부 이 순이, 조카 유 중성, 관점의 처 이 옥희가 귀양언도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취소되고 모두 사형에 처하라는 선고가 내려져 6일 후인 12월 28일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숲정이를 축복된 땅으로 만든 것은 무엇보다 병인년 박해였다. 병인년 박해가 일어나자, 신자 마을을 급습한 포졸들에게 체포된 신자들이 전주 감영으로 압령되었다.

조 화서 베드로와 그 아들 윤호 요셉과 이 명서 베드로와 정 원지 베드로는 소양면 성지동 한 마을 신자이며, 정 문호 발도로메오와 손 선지 베드로 그리고 한 원서 요셉은 대성동 신리골 한 마을 신자들이다. 이들은 12월 3일과 5일에 각각 체포되어 한 감옥에 구속되었는데 신앙은 바로 이 곳에서 완성되었다. 그들은 평상시처럼 기도와 묵상생활을 계속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 하면서 순교의 길을 다져주었다. 그들은, 천당 영광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배교를 호소하는 가족들의 애원과 주변의 유혹을 극복하게 했다. 이들 중 6명은 숲정이에서 12월 13일 참수 치명하였으나, 아버지와 아들은 한날 한장소에서 처형하지 않는 풍습에 따라, 아들 조 윤호는 10일 후 전주 서천교 다리 밑에서 장하 치명되었다.

이곳 숲정이에서 치명한 여섯 사람은 숲정이 건너편 부용 바위 밑 도랑가에 임시로 묻었는데, 그 후 대성동 신리골 출신을 손 베드로 아들 요한이 이듬해 정월 그믐 자기 아버지와 정 문호·한 원서는 고산 천호로 이장하였고, 조 화서·이 명서·정 원지는 유상리 막고개로 이장하였으며, 용머리 고개에 가매장되었던 조 윤호 역시 아버지 곁으로 이장하였다.

이들 7명은 1968년 10월 6일 복자위에,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됨으로써 숲정이는 예사 땅이 아니게 되었다.

주님!  
당신과 나의 만남이 피상적일 수도 있다는 교만에 나의 진실은 자꾸만 어둠속으로 가라앉는가 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성 밖에서 울고 있을 때, 온갖 죄악의 탐 속에 푹푹 숨어버리는 죄녀는 당신께 투쟁과 배반만을 되풀이 합니다.

이 죄인의 가시로 인하여 찢리고 또 찢리는 당신의 성심, 온갖 쓰레기로 가득차 있는 역겨운 내 영혼, 루치펠의 종이 되어 새로운 욕망들을 찾아 나의 몸과 마음은 떠날 준비를 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삶을 영위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불순명이란 단어밖에 모르는 나의 의지는 빈껍질들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도리질만 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당신은 저에게 구원의 매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때 울렸던 고통의 망치소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빈가슴에 메아리되어 차갑게 얼어 버린 나의 양심을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이미 가 버린 잃어버린 시간들...

저의 서성거림은 바람처럼 비어있는 공간을 부유했음을 알게 했습니다.

성체대전에 무릎꿇고 나의 죄를 통회할 때,

오! 자비의 극치이신 주님.

당신은 고통스런 모습을 감추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죄악의 골짜기에서 저를 잡아주시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의 마음 깊숙이 뿌리내리던 죄악의 덩굴들을 감고 올라갈 버팀목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흐트러지고 갈라진 나의 생각들을 주위 모아, 본연의 나를 찾겠습니다.

주님! 저도 당신의 삶의 한 부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주여!

불로써 저를 태우시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신비로운 자비의 샘이시여!

영원무궁토록 찬미받으소서.

흔수장 및 가구류 일절

### 리 바 트 전주대리점

개업 : 7월 17일 <화>

고객 여러분의 실내 예술을 창조코저 확장,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 6-8447 <월드컵 사거리>

홍 의 덕(모니카) 장 동 진

### 희 소 식

독사뺨 물린 사람 전문

치료 5대째

단시간 치료 완치할

연락처 : 전주시 전미동

1가 전당리 시내버스종점

☎ 5-3544

송 준 의(발라바)

대중음식점·연회석안비  
대형애어른 아동

### 대 건 회 관

전북은행 본점 후문앞

(구, 미가도)

☎ 6-7566

김 한 영(안토니오)

하 정 희(엘리사벳)

□ 교황님 말씀

여러분이 주는 미소의 선물

선을 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지고 일해 나가도록 촉구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업화, 도시화, 문화 화, 관계의 국제화, 사회 불안, 지적 허세 같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거대한 현상 들이 가정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특히 노인과 병자, 고령받는 사람, 몸이 온전치 못한 어린이들, 길을 잘못 들었거나 혼란에 빠진 청소년들이 존 재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현존으로 평온과 평화, 희망과 기쁨, 위로와 선에 대한 격 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소를 선물로 선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친절의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 「시민 강좌」 개설

교구 교육국에서는 우리 민족이 처한 복잡다단한 시대적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마르 13,3)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하여, 초빙 강 사를 모시고 매월마다 「시민 강좌」를 개설한다.

- 7월 시민 강좌 -

때 : 1984. 7. 24. 오후 8시

곳 : 중 앙 성 당

강 사 : 송 건 호 선생(사학가)

“칼레의 시민”

강 그레고리오

무슨 개인 미술관에서 로맹의 조각 작품 몇 점을 수입했다고 또 일간지에 실렸다. 값 이 얼마고, 파세가 어떻고, 이런 것은 무슨 재산이니 하는 것을 여기에서 거론한 계제 는 아니다. 다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입 작품 중에서 “칼레의 시민”에 얽힌 이야 기를 알아 보고자 한다.

로맹의 조각 작품이자 회화 작품으로 알려진 이 칼레의 시민은 독일의 극작가 게울그 카이서 회화의 하나이다. 칼레는 도버 해협의 프랑스쪽 요항(要港)이다. 영국에서는 도 버로 불리는 이 해협을 프랑스는 요항 이름 그대로 붙여 칼레 해협이라고 부른다.

그 옛날 영국이 칼레로 침입해서 이 항구를 점령하였을 때 포위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칼레의 시민 다섯 사람의 목숨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 되기를 지원한 시민은 여섯 사람으로 영국이 요구한 다섯 보다 하나가 더 많았다. 지원 한 사람들은 누구 하나라도 물러나려고 하지 않는다. 마침내 제비를 뽑아 그 “한 사람” 이 결정됐다.

그러나 다섯명의 희생자가 적진으로 가기 전 제비로 살아 남은 그 “한 사람”은 스스 로 목숨을 끊어 한 걸음 앞서 죽는다. 영군은 칼레의 시민 한 사람의 의(義)로운 죽음 에 감동해서 다섯 사람의 희생자를 돌려 보내고 칼레에 손하나 대지 않은 채 진(陣)을 돌이켜 물러갔다.

이것이 극작가 게울그 카이서의 “칼레의 시민”의 줄거리이다.

단 몇 사람의 의(義)로운 사람이 없어서 유행불 세례를 받은 음란과 부패의 도시 “소 둥과 고모라”,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에게는 몇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

(김계 천주교회)

요십이 (571) 김병오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모니아)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설치한

보안당 썬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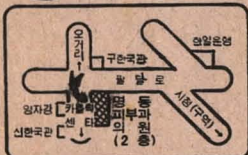
가볍고, 얇고, 원근조절 렌즈, 김 안서리는 렌즈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숨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비뇨기과, 병리검사



원장 전문의 최 창 기(투가)

부설 : 임상병리 검사실

임상병리사 임 운 자

☎ 1719, 740616 (원장실)

(구역전오거리, 팔달로동편 2층)

대 중 낙 원 맨 션 분 양

- 위치 : 서완산동 용머리 고개
  - 평형 : 24평 27평 29평 39평
  - 용자 : 600만원 (19년 상환)
  - 난방 : 연탄 및 가스보일러 (단독)
  - 강도높은 레미콘 타설
- 관심있는 교우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찾아 주십시오. 청성을 다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 대중 산업 대표 유 종엽(스메파노)
- ☎ 2-4871, 6-2326



1. 하나회(장애자 모임) 월례회: 15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 센터
2. 7월 꼬미씨움 회의: 22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대상-푸리아 및 직속 Pr간부 전원
3. 성직자·수도자를 위한 성서 연수회: 23일~25일, 장소-가톨릭 센터, 교과-바울로 서간 입문, 로마서 강사-양 요섭 신부, 등록비-8천원(숙박시-추가경비 1,200원)
4. 제 8차 레지오 마리에 연수회: 28일 오후 2시~29일 오후 6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레지오 간부 및 간부 후보자, 참가비-7천원

□ 축! 영명: 성 보나벤투라(15일)-이 수현 신부님 성 알렉시오(17일)-서 정수 신부님

제 1 지구 각 분당 소식 ①

(중앙)

전화 ⑥1711~3  
수입 신부 문정훈  
보좌 신부 나준성  
사도 회장 김인협

1. 대학생회 봉사활동: 기간-84. 8. 6~12일  
장소-진안성당 동구정공소,  
모집기간-7월 31일, 모집신청-본당 사무실
  2.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23일~28일, 매일 오전 9시~12시, 부모님들의 관심, 협조 바람
  3. 병자방문: 17일, 각 구역 반장님께 신청
  4. 군인신자 주소: 본당 사무실에 제출요
  5. 교구 산간학교: 28~31일, 부모님들 관심 협조 바람
  6. 울뜨레아: 금일 공식미사 후
  7. 벽돌 봉헌: 24,010장 봉헌
  8. 주일학교 영세·첫영성체: 18일 아침 9시부터 교리
- 지난주 봉헌금: 1,013,796원 교무금: 648,100원  
특별헌금: 양만봉 감사헌금(3만원), 권요안나 감사헌금(1만원)

(노총동)

신부 ⑥0969 수입 신부 김용태  
수·사 ③7032 보좌 신부 이섬우  
사도 회장 이홍재

1. 신축기금 신입합시다: 100만원-정순자·익명, 25만원-이재열, 24만원-허정선, 30만원-황향순·황명권, 50만원-이금옥·익명, 40만원-김재철, 63만원-박옥혜, 20만원-김영옥·강준기·이재영·장승영·전태권·송기호·김후경  
소계-6,520,000원, 누계-77,440,000원
  2. 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사제양성을 위한 헌금: 7월중 매주 각미사 후에 2차 헌금을 봉헌합시다
  5. 공소회장단 회의: 17일 오후 3시, 빠짐없이 참석
  6. 환자봉성체: 17일 오후 3시부터  
환자를 모신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7. 공소 순회미사: 21일 저녁 8시, 양정공소
- 지난주 봉헌금: 375,565원 아파트: 96,850원  
교무금: 320,000원 아파트: 91,000원

(덕진)

신부(3)2182 수입 신부 김동희  
수녀(72)1222 보좌 신부 김요안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의 모임: 성모회·반석회(9시 미사후)
  2. 선교보좌위원회: 18일 밤 8시  
직장여성 만사회: 18일 밤 8시
  3. 본당 여사무원 채용: 정경주, 월요일(휴무)외엔 매일 상근합니다
  4. 주일학교 방학: 다음주(22일) 3시 미사후
  5. 첫영성체 및 아동 예비자 교리반: 토·일 오후 4시
  6. 본당 하기수련대회 실시: 적극 참여 바람  
27~30일-중·고학생, 30~8월 1일-성인 남자  
8월 1일~3일-성인 여자, 4~6일-청년 남·녀,  
장소-진안 정전 모정(교대로 실시함)
  7. 금주 분당청소: 반석회·카리따스회, 21일 오후 3시
  8. 은총 가득한(미사전례) 집전을 위해 신자들의 기도  
와 성경봉독, 봉헌예식에 성심껏 참여합시다  
※ 전례위원회에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515,310원 교무금: 222,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수입 신부 권영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성원

1. 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2. 주일학교 하기 특별교리: 23~28일, 오전 10~12시
3. 교리교사 하기수련회: 14~17일

4. 성우회 단합대회: 지난 8일 우천관계로 8월 둘째주 일로 연기
  5. 6월말 분당 유지 운영비 결산  
세입예산액-37,970,000원, 입금누계-18,921,084원  
지출예산액-37,970,000원, 지출누계-15,546,992원  
잔액-3,374,092원, 교무금 예산액-31,200,000원,  
입금액-13,042,130원  
주입금 예산액-4,320,000원, 입금액-3,112,767원
  6. 200주년 기념부채 구입 바람: 1개-2,500원(사무실)
  7.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이갑진 ②김성원  
차주전례: 해설-황만균, 독서-①강준희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140,270원 교무금: 456,620원

(서학동)

신부 ⑥8307 수입 신부 김동준  
수녀 ②2276 사도 회장 김낙균

1. 모임: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2. 첫영성체 교리: 19일 오후 5시부터
  3. 유아세례: 매월 세례주 목요일 10시 미사후
  4. 병자방문: 매월 세례주 목요일, 미리 신청 바랍니다
  5. 교무금 미납하신 분 속히 완납 바랍니다
  6. 차주전례: 독서-①김상곤 ②박종순
- 지난주 봉헌금: 338,300원 교무금: 184,000원

(순정이)

전화 ⑥7366 수입 신부 김종길  
수·유 ③9567 사도 회장 김수갑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구역모임: 금암1구-17일 오후 8시30분, 금암2구-20일 오후 2시
  3. 중·고학생 수련회: 장소-순창군 동계, 일시-미정
  4. 여름 성경학교: 23일~28일까지  
※ 부모님들의 적극 후원 바랍니다
  5.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이동현·최윤희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기도-이동현·최윤희
- 지난주 봉헌금: 221,045원 교무금: 333,600원

(전동)

신부 ⑥208 수입 신부 김치삼  
사무 ③222 보좌 신부 정양현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꼬미씨움: 오늘 오후 2시
  3. 성마리아 푸리아: 오후 4시
  4. 주일학교 교리교사 수련회: 14일~17일
  5. 주일학교 6학년 수련회: 23~25일, 장소-부안 중계
  6. 글로리아 성가대 성모승천 기념 음악미사의 밤 성가 연습 시작: 12일~8월 15일, 관심있는 분 참석 바람
  7. 중·고생 산간학교 신청: 사무실(많은 참가 바람)
  8. 대학생 하기수련회: 18일~20일, 대학생 참석 바람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김동연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안득수 ②고수창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최종만 ②이훈
- 지난주 봉헌금: 815,780원 교무금: 560,5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수입 신부 박중신  
수녀 2-4804 사도 회장 이교성  
사무 2-0915

1. 예비자 입교환영식: 오늘 10시
  2. 사도회 상임위원회: 17일 오전 9시30분
  3. 설서감작: 출애굽기 33~40장
  4. 어린이 성경학교 및 수련회: 23~28일
  5.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감사합니다: 성당의자 책들, 익명-20만원
- 지난주 봉헌금: 307,755원 교무금: 214,000원